

# 《素問·熱論》 六經分證과 《傷寒論》 六經辨證의 相關性에 對한 研究

이동희<sup>1</sup> · 이준범<sup>1</sup> · 황만섭<sup>1</sup> · 윤중화<sup>1</sup>

<sup>1</sup>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 The comparative study on Liu-Jing-Bian-Zheng(六經辯證) of 《Sang Han Lun(傷寒論)》 and Liu-Jing-Fen-Zheng(六經分證) of 《Su Wen · Re Lun(素問·熱論)》

Dong-hy Lee<sup>1</sup>, Jun-Beom Lee<sup>1</sup>, Min-Seob Hwang<sup>1</sup>, Jong-Hwa Yoon<sup>1</sup>

<sup>1</sup>Dep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Oriental Medicine College of Dong Guk University

### Abstract

**Objective :** The following study was undertaken in order to seek the acupuncture operation method of 《Sang Han Lun(傷寒論)》 Liu-Jing-Bian-Zheng(六經辯證).

**Methods :** Based on the documents quoted in 《Sang Han Za Bing Lun · Xu Wen(傷寒雜病論·序文)》 of "Zhang, Zhong-Jing(張仲景)", the relativity of the theory of Jing-Mai(經脈) and Liu-Jing-Bian-Zheng of convalescence.

### Results :

1. 《Sang Han Lun》 Liu-Jing-Bian-Zheng has succeeded and was developed based on Liu-Jing-Fen-Zheng(六經分證) of 《Su Wen · Re Lun(素問·熱論)》.
2. Liu-Jing-Bian became the general principle of Fen-Jing(分經) and Ding-Zheng(定證) that may be applicable to Fenghan(風寒), Wenre(溫熱), Lili(疫癘) and Zabing(雜病).
3. Most commentators of 《Sang Han Lun》 in the Song, Ming and Ching Dynasties of 《Sang Han Lun》 interpreted the Liu-Jing-Bian in physiological and pathological aspects of Rong-Wei(榮衛)

**Key words :** 《Sang Han Lun》, 《Su Wen · Re Lun》, Liu-Jing-Bian-Zheng, Liu-Jing-Fen-Zheng

## I. 序 論

先秦의 馬王堆 出土 醫書 중 《足臂》 《陰陽》 및 《脈法》에서 經脈의 路線, 經脈病候, 經脈診斷 및 各 刺絡의 治療法이 最初로 記載되어 있고<sup>1,2,3</sup>, 漢代의 《靈樞》에서는 經脈에 解剖·生理·病理理論을 導入하여 循環路線의 確立,

經脈病候의 擴大, 三陰三陽에 따른 人迎寸口脈診法 및 鍼을 중심으로 灸, 刺絡, 藥物 등을 利用하여 治療하는 經絡學說이 樹立되었다<sup>4,5</sup>.

《素問》 《靈樞》에서 鍼灸學과 醫論의 兩面에서 基礎的인 成就를 바탕으로, 東漢의 《難經》에서 脈學, 經絡, 臟腑, 疾病, 穴位 및 鍼法을 體系의으로 論述하였다. 특히 獨取寸口診脈法, 左腎右命門說, 奇經八脈, 五輸·原·八會·俞募穴 및 補瀉法 등의 鍼灸에 關한 學說과 <五十八

• 교신저자: 윤중화, 경주시 용강동 357번지 동국대 부속한방병원 침구과, HP: 017-802-2624, E-mail: item0916@chol.com  
·접수: 2004/09/25 ·수정: 2004/11/29 ·채택: 2004/12/17

難>의 傷寒은 中風, 傷寒, 濕溫, 熱病, 溫病을 포함하는 '廣義傷寒說'을 闡發하였다<sup>6,7,8)</sup>.

東漢 末年에 湯液中心으로 著述된 <傷寒雜病論>은 漢末의 戰火로 逸失된 것을 晉·太醫令인 王叔和가 醫書を 收集하고 整理하여 <脈經·卷七>에서 汗, 吐, 下, 和, 灸, 刺, 水 및 火의 治法에 따라 "可" "不可"의 次例로 轉載하였고<sup>9)</sup>, 唐·孫思邈의 <千金翼方·卷九·卷十>을 바탕한 唐本傷寒論으로<sup>10)</sup>, 北宋·林億 등은 校正醫書局의 校訂을 거쳐 定本人 <宋本傷寒論>과 <金匱要略>으로 分卷하여 傷寒 學術 發展의 基礎를 마련하였다<sup>11)</sup>.

金·元代는 龐安時의 <傷寒總病論>과 朱肱의 <類證活人書>를 中心으로 八綱辨證을 통하여 '辨證思想'이 重視되었고, 許叔微 <傷寒發微論>에서 '三綱鼎立' 學說이 提起되었고. 明·清代는 '錯簡重訂', 尊王(叔和)贊成(无己)을 주장하는 '維護舊論', 同時에 '以方類證'을 위주한 '辨證論治' 등의 學術類派가 형성되어 傷寒 學術이 發展하였다<sup>12)</sup>.

<傷寒論> 研究 方面에 있어서, 朱<sup>13)</sup>는 "傷寒의 治療에는 먼저 經絡을 알아야 하고 經絡을 알지 못하면 邪氣의 所在를 알 수 없다." 하였고, 呂<sup>14)</sup>는 "<傷寒論>의 六經病은 <素問·熱論>을 本으로 새롭게 發展시켰다." 하였고, 柯<sup>15)</sup>는 "六經提綱과 六經地面說을 提唱하여 <傷寒論>의 六經과 <素問·熱論>의 六經이 모두 辨證論治의 綱領으로 相當한 差異가 있다."고 하였으며, 山田<sup>16)</sup>은 "宋 以後의 <傷寒論> 文獻 및 醫學의 研究 主題는 <傷寒論> 屬에 內藏된 醫學的 方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을 確立하는 過程이었다."고 主張

하였다.

이에 論者는 <傷寒論·序文<sup>17)1)</sup>>에서 引用한 文獻과 內容으로 <素問> <靈樞> 및 <難經>의 經脈理論과 經脈病候와 <傷寒論>의 相關性에 對한 考察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傷寒論>과 熱病의 轉變을 經絡理論으로 解釋한 <素問 熱論>의 六經分證과 <傷寒論>의 外感病 辨證體系인 六經辨證의 聯關性에 對한 研究와 <傷寒論>에 對한 새로운 研究方向 및 治療方法을 연구하여 報告합니다.

## II. 本 論

### 1. 三陰三陽의 意義

陰陽은 觀物取象으로 分類하는 方法이며 <素問·陰陽離合論> "日爲陽 月爲陰"이라 하여 日月을 陰陽으로 나누고 <素問·天元紀大論> "陰陽之氣各有多少, 故三陰三陽也"이라 하여 氣의 多少가 分類의 基準이 되며 陽分은 太陽, 陽明(兩陽合明, 兩火并合) 少陽으로 多, 少, 盛의 三極이 形成되고, 陰分은 太陰 少陰 厥陰(兩陰交盡, 至絕作朔晦)으로 多, 少, 衰變의 三極이 形成되고, <素問·至眞要大論> "氣有多少, 異用也"이라 하여 氣의 多少에 따라 三陰三陽은 機能에 差異가 생긴다고 하였다.

先秦에서 '三陰三陽'說의 史料는 馬王堆 出土 醫書 중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에서 有力한 證據를 提供하고 있으며, 馬<sup>19)</sup>는 "兩部 古灸經은 <黃帝內經>의 祖本이며, 泰陽(或鉅陽), 少陽, 陽明, 少陰, 卷陰(或厥陰)으로 命名된 經脈이 있고 最初로 三陰三陽의 述語가 既述되어 있다." 하였다.

1) 喋橘泉 收藏. 古本康平傷寒論. 長沙: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8: 1-3.

"…… 勤求古訓, 博採衆方, (注) 撰用素問九卷, 八十一難, 陰陽大論, 胎產藥錄, 并平脈辨證" 宋本보다 6년 정도 앞서 抄寫되었고 <傷寒論> 傳本 中에서 唐本으로 보이는 日本에서 발견된 康平本에는 <傷寒論序文>의 古典 引用 文獻이 注로 處理되어 있음.

《黃帝內經》의 三陰三陽은 天時變化, 天人關係, 臟象, 經絡, 氣血, 形志, 診療, 脈象, 病能 및 標本 등의 醫論에 貫通되어 있으며<sup>18)</sup>, 《黃帝內經》과 中古醫籍 가운데 不同한 三陰三陽의 29種 9大類의 經脈生理特證 및 層次類 氣血盛衰類, 氣血多少類, 病理反應類, 脈診部位類, 日旬年의 週期類의 過去·現在·未來 및 晝夜變化를 포함하는 天人地의 相互交感, 自然界的 氣候變化에 따른 歷法 및 臟腑經絡의 定性·定位에 따른 氣血盛衰의 變化 등은 모두 三陰三陽을 經絡로 編成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sup>20)</sup>.

《素問》과 《靈樞》에서 言及된 經絡의 ‘三陰三陽’ 說에 關하여서는 《素問·皮部論》에는 皮部를 三陰三陽의 經脈을 基本으로 分區하고 外邪가 皮部에서 臟腑로 이르는 傳變을 論述하였고, 《素問·陰陽離合論》에는 光明(心臟)을 중심으로 上下, 前後, 內外으로 區分하여 三陽의 太陽, 陽明, 少陽의 部位 및 三陰의 太陰, 少陰, 厥陰의 部位를 分區하였다.

그리고 《素問·陰陽離合論》과 《素問·皮部論》에는 陰陽之氣의 多少에 따른 三陰三陽經脈의 機能을 開·闔·樞로 說明하였고, 《靈樞·根結》에는 開·闔·樞의 病理와 證候를 既述하고 있다. 또한 《靈樞·經脈》에서는 手足 三陰三陽經의 循環理論을 確立하였고, 《素問·熱論》에는 三陰三陽의 經絡으로 外感 熱性病의 傷寒症狀을 六經으로 分類한 六經分證, 并病 및 死證에 關하여 論述하고 있다.

한편 陰陽은 宇宙萬物을 對象으로 하는 兩大分類이고 三陰三陽은 事物의 屬性에 對한 分類로 各各은 三으로 分類하는 方式이며 經絡의 三陰三陽說은 “三陰三陽의 開闔樞說” 과 “三陰三陽의 外感熱病說” 의 二種類가 있다<sup>20)</sup>.

《素問·熱論》의 “三陰三陽의 外感熱病說” 에 關하여 “三陰三陽의 外感熱病說” 을 六經傳

<表. 1> 《素問熱論》의 六經分證과 《傷寒論》 六經提綱

來源 六經名	《素問熱論》 六經分證	《傷寒論》 六經病 提綱
太陽	斗項痛, 腰脊强	脉浮, 斗項强痛而惡寒 發熱
陽明	身熱, 目痛, 鼻乾, 不得臥	身熱自汗, 渴飲便結, 潮熱譫語
少陽	胸脇痛而耳聾	口苦, 咽乾, 目眩, 胸脇苦滿, 寒熱往來
太陰	腹滿而噎乾	腹滿而吐, 食不下, 自利益甚, 時腹自痛
少陰	口燥舌干而渴	脉微細, 但欲寐, 惡寒身卷, 手足厥冷
厥陰	煩滿而囊縮	消渴, 氣上衝心, 胸中疼熱, 飢而不欲食, 食則吐蛔, 下之利不止

變으로 論述한 《素問·熱論》과 外感熱病을 三陰三陽의 概念으로 傳變, 診斷 및 治療를 體系를 갖춘 著作인 《傷寒論》에 關하여 趙<sup>21)</sup>는 “《傷寒論》의 六經學說은 《內經》 三陰三陽理論의 發展이다.” 하였고, 姜<sup>8)</sup>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이며,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으로 하여 深化하고 發展시켜 體系化되었다.” 하였고, 南京<sup>21)</sup>은 “《素問·熱論》의 六經은 分證의 綱領이고 《傷寒論》의 六經은 辨證의 綱領이다.”고 하였다.

醫史學的으로 살펴보면 三陰三陽은 馬王堆 漢墓 帛書에 처음 轉載되어 있고, 《黃帝內經》에서 三陰三陽의 理論은 더욱 發展되고 完備되었다. 이후 《傷寒論》에서 그 理論 및 臨床應用에 飛躍的으로 發展하게 되었고 理·法·方·藥에 貫穿되는 辨證論治의 診斷 및 治療方法이 形成되었다<sup>18)</sup>

## 2. 《傷寒論》과 經絡理論의 連貫性

《素問》과 《靈樞》에는 外感熱病에 對하여 專門的으로 論述하고 있으며 《素問》에는 <熱論> <平熱論> <刺熱論>, 《靈樞》에는 <熱病

篇> <寒熱病篇> <寒熱> 등이 있으며 全篇에 散在된 基本理論은 <傷寒論>의 理論的인 根據를 提供하고 있으며<sup>12)</sup>.

특히 <素問·熱論>은 外感 熱性病의 轉變을 足六經의 經絡學說로 說明하고, 巨陽少陰俱病, 陽明太陰俱病, 및 少陽厥陰俱病 등의 兩感傷寒說, 治療法 및 熱病에 對한 豫後 등은 <傷寒論>의 構成理論 즉 六經을 바탕으로 한 證候分類 및 合病, 併證 등의 類似한 初期形式으로 <傷寒論>을 經絡學說로 解釋하는데 있어 <素問·熱論>을 <傷寒論>의 淵源으로 認識되어 왔다<sup>12,21)</sup>

그리고 姜<sup>8)</sup> 등은 “<素問·熱論> “今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 하여 傷寒을 急性 發熱性 病變에 歸屬시켰고, “傷寒一日 巨陽受之, …… , 六日厥陰受之.” 의 六經의 經絡에 따른 證候를 分類한 六經分證은 <傷寒論> 六經辨證의 淵源이다.” 하여 <素問·熱論>을 <傷寒論> 形成의 淵源關係으로 強調하였다.

그러나 <素問·熱論>의 經絡學說은 馬王堆 帛書의 <陰陽十一脈> <足臂十一脈> 및 張家山 漢簡 <脈書>의 經絡學說과는 相當한 差異가 있으며, <素問·熱論>의 經絡學說에는 馬王堆 帛書의 經脈特徵을 많이 內包하고 있으며, <靈樞·經脈>로 發展되고 形成되는 基本的인 經絡學說의 形態를 胚芽하고 있으며, 黃<sup>22)</sup>은 “經絡學說은 <脈書>로 부터 演變되어 <經脈>의 形式으로 發展하였고, <素問> <靈樞>에는 馬王堆 帛書와 <靈樞·經脈>의 中間形式으로

<素問·熱論>, <素問·臟氣法時論> 및 <靈樞·經筋> 등의 文獻이 있다.” 하였다.

한편 <傷寒論> 方劑의 歷史的인 形性過程을 보면 近年에 發掘된 醫學方面的 帛書, 漢簡 및 漢牘 중에서 馬王堆의 <足臂>, <陰陽> 및 <脈法>에서 經脈의 路線, 經脈病候, 經脈診斷 및 灸刺絡의 治療法이 最初로 記載되어 있으며<sup>19)</sup>, <五十二病方>의 處方에는 理論體系가 형성되지 않았고 傷寒方面的 處方이 없다. 前漢의 <居延漢簡>에는 一個의 傷寒發汗治方이 있고, 東漢 初期의 <武威醫藥簡牘>의 <治百病方>에는 辨證論治의 雛形이 形成되어 있고 外感傷寒에 對한 治法 및 方劑의 形成에 前承後啓의 役割을 하였고<sup>12,23)</sup>, 當時의 經絡學說의 古代文獻과의 聯關性은 찾아 볼 수 없다.

東漢 末의 著名한 醫籍인 <傷寒論·序文>에는 “…… 勤求古訓, 博採衆方, 撰用素問九卷, 八十一難, 陰陽大論, 胎臚藥錄, 并平脈辨證, 爲傷寒雜病論 合十六卷 ……” 하였고, 現存하는 <素問>의 <熱論> <平熱論>, <靈樞>의 <熱病篇> <寒熱病篇> <寒熱> 등의 外感熱病의 專門的인 論述, <難經>의 <五十八難> 廣義傷寒說, 脉診 및 汗下法의 可·不可 등, 先秦 및 秦漢代의 藥物知識이 總結된 <神農本草經>의 全身인 <胎臚藥論> 및 <漢書藝文誌>의 經方의 方劑 등은 <傷寒論>의 著作에 撰集되어 利用된 醫學理論 및 先驗方劑의 根據를 提供하고 있다<sup>24)·25)·3)</sup>.

그리고 喋<sup>12)</sup>은 “<傷寒論>의 六經理論은 <

2) 班固著, 李世烈解譯. 漢書藝文誌. 서울 : 자유문고, 1995 : 306-321.

東漢 以前의 圖書目錄에 해당하는 <漢書藝文誌方技略>에는 醫經, 經方, 房中, 神僊으로 분류된 古醫書가 記載되어 있으며, 醫經에는 <黃帝內經> 18卷, <黃帝外經> 37卷 <扁鵲內經> 9卷, <扁鵲外經> 12卷, <白氏內經> 38卷, <白氏外經> 36卷 및 <傍篇> 25卷의 書目이 있고, 經方에는 <五藏六府痹十二病方> 30卷, <五藏六府疝十六病方> 40卷, <五藏六府痺十二病方> 40卷, <風寒熱十六病方> 26卷, <秦始黃帝扁鵲俞拊方> 23卷, <五藏傷中十一病方> 31卷, <客疾五藏癰癧病方> 17卷, <金創癰癧方> 30卷, <婦人嬰兒方> 19卷, <湯液經法> 32卷 <神農黃帝食禁> 7卷의 書目이 있다.

3) 從春雨. 敦煌中醫藥全書.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94 : 114. 116-125.

素問·陰陽應象大論》을 本으로 《素問·氣交變大論》 《素問·熱論》 및 《靈樞·經脈》 등의 理論을 繼承하고 發展하여 成立되었다.” 하여 《傷寒論》의 六經理論은 《內經》 經絡學說의 影響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으며, 《傷寒論》의 六經辨證에 對하여 山田<sup>16)4)</sup>은 “六經辨證은 원래 《傷寒論》 속에 內藏되어 있었지만 마치 溶液속에서 結晶을 析出할 수 있는 것처럼 《傷寒論》에 根據한 임상 경험을 쌓아 가는 동안 三陰三陽病의 脈證群과 治療法群間의 大應關係를 알아내고 《傷寒論》이란 용기 속에서 조금씩 六經辨證이 析出되어 가는 過程이 《傷寒論》 研究의 歷史이다.” 하여 歷代 醫家들의 《傷寒論》을 研究하는 過程 中에서 發見되고 確立된 六經辨證이 經絡理論과의 連貫性을 示唆하고 있다.

## 2. 六經病 提綱의 形成 淵源

《傷寒論》의 六經病의 提綱은 《注解傷寒論<sup>26)</sup>》에서 提出된 것은 아니며, 《傷寒論條辨<sup>27)</sup>》에서 六經病의 綱의 雛形을 隱匿하고 있으며, 《尙論<sup>28)</sup>》에서 六經病의 證과 脈의 要綱으로 說明하였고, 《傷寒來蘇集·傷寒論注<sup>29)</sup>》 “仲景作論大法, 六經各立病機一條, 提揭一經綱領, 必擇本經至當之脈證而表章之.” 하여 “六經提綱說”을 提唱하였다.

《傷寒貫珠集<sup>30)</sup>》에서 此條를 “…… 故柯氏目

爲六經之綱領, 而此則爲太陽之綱領也. …… , 學者當參合他條, …… .” 하여 六經의 各條는 各經의 脈과 證을 既述하고 있다는 “六經提綱說”을 認定하고 提綱에는 不足한 점이 있어 他條를 參合하여야 한다하였고, 《傷寒論綱目·總論<sup>31)</sup>》에서는 六經의 提綱을 <六經主症> 篇을 構成하여 總論에 偏在하였다.

《醫宗金鑑·訂正中景全書·傷寒論注<sup>32)</sup>》에서 六經病의 脈과 證을 包括하는 概要로서 六經病의 提綱의 位置를 格上시켰고, 陳<sup>33)</sup>는 “六經病의 提綱을 脈과 經氣를 言及한 經脈病으로 「六經經脈經氣說」로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闔樞의 氣化學說로 說明하고 六經病의 總綱이다.” 하였다.

그리고 《傷寒來蘇集·傷寒論翼·全論大法第一<sup>29)</sup>》 “六經病의 提綱은 六經의 發病이며 傷寒의 六經이 아니다. …… 傷寒과 雜病을 合한 論旨이다” 하였고, 《傷寒約編·太陽證提綱<sup>34)</sup>》에서 “風寒, 溫熱, 疫癘 및 雜病을 無論하고 六經에 病이 罹患되는 綱領으로 分經·定證의 基準이 된다.” 하였고, 山田<sup>16)</sup>은 “宋以後의 《傷寒論》의 文獻 및 醫學的인 研究의 主題는 《傷寒論》 屬에 內藏된 醫學的 方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을 確立하는 過程이었다.” 하였다.

## 3. 《素問·熱論》 六經分證과 《傷寒論》 六經辨證.

近年에 敦煌에서 發掘되고 抄寫 年代가 宋代 以前으로 보이는 南北朝 時代의 梁陶弘景의 《輔行訣臟腑用藥法要》에는 “陶隱居云; 商有聖相伊尹, 撰《湯液經法》三冊, 爲方三百六十數. …… . 實歷代醫家之規範, 蒼生獲命之大寶也. …… 漢晉以還, 著名醫輩張機, 衛汜 …… 咸師式此《湯液經法》. 憫民疾苦, 造福含靈.” 하였다. 《輔行訣臟腑用藥法要》에 있는 少陽旦湯은 桂枝湯, 少陰旦湯은 黃芩湯加生薑 …… 少青龍湯은 麻黃湯, 大陰旦湯은 小柴胡湯 …… 小白虎湯은 白虎湯, 小玄武湯은 眞武湯 등과 같이 《傷寒論》 《金匱要略》의 方劑와 아주 類似하며, 또 “張機撰《傷寒論》, 避道家之稱, 故其方皆非正名, 但以某藥名之, 以推之爲識耳.” 하였다.

- 4) 山田慶兒 著. 전상은, 이성규 옮김. 중국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02 : 190-192. “醫學의 歷史的 段階, 醫療的 現實 및 臨床醫學者들의 檢索의 便利라는 세 가지 조건을 합친다면 《脉經》 傷寒의 偏在가 治療法에 따른 可不可로 되어 있는 것은 合理性이 있다. 그러나 當時의 醫家들은 三陰三陽에 따른 分類 및 六經辨證은 認識하지 못하였다.”

《素問·熱論》의 “傷寒一日, 巨陽受之, …… 六日厥陰受之”의 引用文으로 생각되는 《傷寒論·傷寒例第三》의 제90조 “尺寸俱浮者, 太陽受病也, …… 尺寸俱微者 厥陰受病也.” 및 《傷寒論》의 三陰三陽病의 條文을 成<sup>26)</sup>이 처음으로 《傷寒論》의 三陰三陽을 經絡의 三陰三陽으로 註釋한 後에 朱<sup>13,26,27,28)</sup> 등은 《素問》 《靈樞》의 經絡理論과 연계된 經絡의 六經病으로 解釋하였다.

그리고 韓<sup>35)</sup>은 《傷寒論》의 三陰三陽의 六經病은 手의 三陰三陽經으로는 傳變되지 않고 足의 三陰三陽經으로 傳變된다는 “傷寒傳足不傳手說”을 主張하였고, 黃<sup>36)</sup>은 “《傷寒論》에서 足經만 言及하고 手經을 言及하지 않은 것은 手經과 足經은 同氣相求하며 足經은 身體에서 分輸된 部位가 크고 길며 氣가 旺盛하여 足經의 病이 深하고 手經의 病은 經하므로 足經으로 言及한 緣由이다.” 하였다.

한편, 柯<sup>15)</sup>는 “《傷寒論》 六經의 總綱은 《素問·熱論》과 不同하고 經絡의 病候에 重點을 둔 것이 아니며 …… 仲景의 六經은 六個로 區分된 地面이며 (六區地面說), 經絡上의 經絡으로 立說한 것이 아니며 廣義의 人 脉으로서의 經絡이다” 하였고 (表,2 참조), 尤<sup>30)</sup>는 “十二經絡은 相互 聯關되어 있고 各 經은 畔界(領域의 經界)가 있다.” 하여 六經을 領域의 境界로 說明하였다. 그러나 六經의 「地面과 畔界」를 立論한 意義는 《素問·熱論》과 差異가 있다고 생각된다.

張<sup>12,37)</sup>과 陳<sup>38)</sup>은 《傷寒論集注》 및 《傷寒論宗印》와 《傷寒論淺注》에서는 《靈樞·經脈》의 手·足三陰三陽의 經脈의 循行部位와 《素問》 運氣七篇의 六經氣化의 標本中氣의 從化規律 및 開闔樞의 氣化理論으로 解釋하였고, 楊<sup>40)</sup>, 趙<sup>21)</sup> 등은 “《傷寒論》의 六經氣化의 實在은

手·足三陰三陽經의 經絡氣化學說의 反映으로 ……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闔樞의 氣化學說은 傷寒六經氣化의 整體理論이며 縱橫으로 《傷寒論六》 經間의 相互關係를 闡述하고 있다.” 하였다.

한편 《素問·熱論》의 六經分證과 《傷寒論》 六經辨證의 連貫性과 差異點에 대하여 柯<sup>15)</sup>는 “《素問·熱論》의 六經은 全的으로 經脈을 爲主한 病이며 表裏의 實熱만 있고 表裏의 虛寒이 없으며, 또 治療에 있어 汗 下法만 있고 溫補法이 없으며, 《傷寒論》의 六經은 「六區地面」이며 風寒溫熱, 內傷外感, 表裏, 寒熱, 虛實 등을 包含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였다.

<表. 2> 《傷寒論傷寒例》 및 六經地面

六經 來原	傷寒論 傷寒例	傷寒來蘇集·六經正義 六經地面	
太陽	尺寸俱浮者 太陽受病也	心者 三陽 三陰 地面	開 內有心胸 外自顛頂 前至額顛 後至肩背 下及于足 內合膀胱 太陽地面
陽明	尺寸俱長者 陽明受病也		闔 內自心胸至胃及腸 外自斗顛 由面至腹 下及于足 陽明地面
少陽	尺寸俱弦者 少陽受病也		陽樞 由心至咽 出口頰 上耳目 斜至巔 外自脇內屬膽 少陽地面
太陰	尺寸俱沈細者 太陰受病也	腹者 三陰 三陽 地面	開 自腹及二腸魄門 太陰地面
少陰	尺寸俱沈者 少陰受病也		闔 自腹至兩腎及膀胱溺道 少陰地面
厥陰	尺寸俱微緩者 厥陰受病也		陰樞 自腹由肝上膈至心 從脇肋下及于小腹宗筋 厥陰地面

그리고 趙<sup>21)</sup> 등은 “《傷寒論》의 六經學說은 《內經》 三陰三陽理論의 發展이다.” 하였고, 山田<sup>16)</sup>은 “《傷寒論》의 基礎는 《素問·熱論》에 있다.” 하였고, 喋<sup>12)</sup> 姜<sup>8)</sup> 등은 “六經의 經絡에 따른 證候를 分類한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으로 《傷寒論》

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으로 深化되고 發展되었다.” 하여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으로 格上시켰고, 《傷寒論譯釋》<sup>41)</sup>에서 “《素問·熱論》의 六經은 分證의 綱領이고, 《傷寒論》의 六經은 辨證의 綱領이다.” 하여 《素問·熱論》의 六經理論과 《傷寒論》 六經理論의 差異點을 說明하였다.

#### 4. 《傷寒論》 六經辨證의 새로운 研究方法

宋 以後 《傷寒論》의 研究는 王叔和의 編輯이 있다고 여겨 加筆 혹은 增補한 部分을 削除, 修訂 및 註釋을 하여 《傷寒論》의 本來의 모습으로 復原하는 것을 目的으로 “錯簡重訂” “舊論守護” “辨證論治” 등의 學術類派가 形成되었고<sup>12)</sup>, 明 및 清代 大部分의 《傷寒論》의 注家들은 六經病의 提綱과 三陰三陽의 條文을 《素問》 《靈樞》의 經絡과 榮衛氣의 生理·病理的인 面에서 註釋하고 있으며, 經絡理論과 經脈病候를 方劑의 運用에 適合한 六經辨證을 創案하였다<sup>16)</sup>.

그러나 《傷寒論》 六經理論을 經絡體系로 보지 않고 六經病에 對하여 새로운 解釋을 시도하고도 있으며, 그 중에서 俞<sup>42)-5)</sup>는 「六經形層說」을 提示하여 “傷寒六經은 단지 外邪가 人體에 侵襲하는 經路이며 身體에 生成된 痰飲, 水飲, 瘀血, 渣滓 등의 滯留의 部位이며 病이 生成되고 轉變하는 經路로서 三焦을 벗어나지 않는 六個의 形層의 段階일 뿐이며 傷寒六經은 經絡六經과 差異가 있다.” 하였고, 惲<sup>43)</sup>은 “人體에 病이

없으면 六經은 存在하지 않고 發病의 症狀을 分類하는 六種類의 「界說」을 提示하고 三陰三陽은 表裏, 寒熱, 虛實을 表明한 概念이며 臟腑經絡의 配屬關係가 아니다.” 하였다.

<表. 3> 《素問·熱論》의 六經分証, 《傷寒論》의 六經病 및 《東醫壽世保元》의 四象人 病證의 分類 比較

《素問·熱論》	《東醫壽世保元》	《傷寒論》	《東醫壽世保元》
巨陽經病	少陽人病	太陽病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의 病症
少陽經病	少陽人病	少陽病	少陽人 病症
陽明經病	太陰人病	陽明病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의 病症
少陰經病	少陽人病	少陰病	少陰人 病症
太陰經病	太陰人病	太陰病	少陰人 病症
厥陰經病	少陰人病	厥陰病	少陰人 病症

한편 《傷寒論》 六經辨證의 새로운 解釋에 대하여 劉<sup>14)</sup>는 “《傷寒論》의 六經은 經絡學說에 根據를 두고 있으며, 《傷寒論》 六經의 다른 見解들인 「段階」 「地面」 「症候群」 「六病」 「八綱」 등의 說法은 《素問·熱論》의 經絡六經과 差異가 크지 않다.” 하여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여러 見解에 비하여 經絡學說이 六經辨證의 淵源임을 強調하였다.

19 C 末葉 李<sup>44)</sup>는 “三陰三陽은 辨證의 同異를 求하는 것으로 三陰三陽의 理致는 腹背表裏에 있어 經絡의 傳變을 求할 必要가 없다.” 하였고, 또 “《素問·熱論》의 巨陽 少陽 少陰經의 病은 少陽人病·陽明 太陰經의 病은 太陰人病·厥陰經의 病은 少陰人病으로 解釋” 하여 《素問·熱論》의 症狀分別 中心의 六經分證을 사람(四象人)중심의 症狀分證으로 說明하였고, 또한 “《傷

5) 俞根初. 重訂通俗傷寒論. 台北：大中國圖書公司. 1976：1-2.

太陽經主皮毛 陽明經主肌肉 少陽經主腠理 太陰經主肢末 少陰經主血脈 厥陰經主筋膜  
太陽內部主胸中 少陽內部主膈中 陽明內部主脘中 太陰內部主大腹 少陰內部主小腹  
厥陰內部主小腹

寒論》의 六經病 중 三陰病證은 少陰人病證, 少陽病病證은 少陽人病證, 太陽病病證과 陽明病病證은 少陽人·少陰人·太陰人의 病證”의 臟腑性理에 따른 人物名目(少陽人·少陰人·太陰人·太陽人)으로 認識하여 《傷寒論》의 研究를 症狀中心에서 人物中心으로 轉換시키는 醫論을 闡發하였다.

### Ⅲ. 考 察

《傷寒雜病論》은 漢末의 戰火로 逸失된 것을 晉의 太醫令 王叔和가 醫書를 收集하고 整理하여 《脉經·卷七》에 發汗, 吐, 下, 和, 灸, 刺, 水 및 火法의 治療法에 따른 “可” “不可”의 次例로 配列되어 轉載되어 있으며, 《千金翼方·卷九·卷十》의 唐本傷寒論, 北宋의 校訂醫書局의 校訂을 거친 後에 傷寒部分은 《傷寒論》, 雜病部分은 《金匱要略》으로 分卷되었고, 宋以後 《傷寒論》의 研究는 王叔和의 編輯이 있다고 여겨 加筆 혹은 增補한 部分을 削除, 修訂 및 註釋을 하여 《傷寒論》의 本來의 모습으로 復原하는 것을 目的으로 “錯簡重訂” “舊論守護” “辨證論治” 등의 學術類派가 形成되었다<sup>12,45)</sup>.

《素問·熱論》은 外感 熱性病의 轉變을 足六經의 經絡學說로 說明하고, 巨陽少陰俱病, 陽明太陰俱病, 및 少陽厥陰俱病 등의 兩感傷寒說, 治療法 및 熱病에 對한 豫後 등은 《傷寒論》의 構成理論 즉 六經을 바탕으로 한 證候分類 및 合病, 併證 등의 類似한 初期形式으로 《傷寒論》을 經絡學說로 解釋하는데 있어 《素問·熱論》을 《傷寒論》의 淵源으로 認識되어 왔다<sup>12)</sup>.

그리고 姜<sup>8)</sup> 등은 “《素問·熱論》 ‘今夫熱病者 皆傷寒之類也.’ 하여 傷寒을 急性 發熱性 病變에 歸屬시켰고, ‘傷寒一日 巨陽受之, …… , 六日厥陰受之.’ 의 六經의 經絡에 따른 證候를 分類한 六經分證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

이다.” 하였고, 山田<sup>16)</sup>은 “宋 以後의 《傷寒論》의 文獻 및 醫學的인 研究의 主題는 《傷寒論》屬에 內藏된 醫學의 方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을 確立하는 過程이었다.” 하였다.

한편 《素問·熱論》의 六經分證과 《傷寒論》의 六經辨證에 對하여 柯<sup>15)</sup>는 “仲景 六經의 總綱은 《素問·熱論》과 不同하고 經絡의 病候에 重點을 둔 것이 아니다.” 하였고, 또 柯<sup>15)</sup>는 “六經提綱과 六經地面說을 提唱하여 《傷寒論》의 六經과 《素問·熱論》의 六經이 모두 辨證論治의 綱領이며 또한 相當한 差異가 있다. …… 《素問·熱論》의 六經은 全의으로 經脈爲主의 病이며 表裏의 實熱만 있고 表裏의 虛寒이 없고 治療에 있어 汗·下法만 있고 溫補法이 없다. 《傷寒論》의 六經은 「六區地面」이며 風寒, 溫熱, 內傷, 外感, 表裏, 寒熱, 虛實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여 《素問·熱論》과 《傷寒論》의 理論體系 및 治療法의 差異點을 說明하였다.

姜<sup>8)</sup>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淵源이며,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을 基本하여 深化하고 發展시켜 體系化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日本의 山田<sup>16)</sup>은 “宋 以後의 《傷寒論》의 文獻 및 醫學的인 研究의 主題는 《傷寒論》屬에 內藏된 醫學의 方法 즉 六經辨證으로 불리는 診斷 및 治療의 方法을 確立하는 過程이었다.”고 하였고, “戰國後期の 著作으로 보이는 馬王堆 出土 醫書의 《十一脈灸經》과 《五十二病方》을 보면 藥物療法과 鍼灸療法은 각각 獨立的으로 發展하였고 …… 解剖學의 發達, 循環器와 內臟 및 經絡과 臟腑의 連繫는 藥物療法과 鍼灸療法의 兼用할 수 있는 理論의 基礎의인 道路가 創立되었고 …… 《傷寒論》은 經脈學說

에서 發展된 脈診法을 藥物療法에 導入하여 體系化하였다.” 하여 《傷寒論》이 經脈學說과의 理論的 連貫性이 있음을 논술하였고, 金<sup>46)</sup>은 “《傷寒論》의 六經病은 三陽症과 三陰症을 概括한 것으로 基本的으로 十二經脈의 手, 足同名經의 病候를 精簡, 補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傷寒論》의 六經構成과 《內經》의 構成體系에는 첫째, 太陽病中에 手太陰經과 肺臟病證이 包含되어 있고, 둘째, 太陰病에서는 足太陰經과 脾臟病證 뿐이고, 小腸은 陽明에 隸屬시키는 差異점이 있다.” 하여 《傷寒論》의 六經病과 《內經》의 經絡體系와의 連貫성과 差異點을 說明하였다.

《傷寒論》 六經辨證의 意義에 對하여 喋<sup>12)</sup>은 “《傷寒論》의 六經辨證은 陰陽, 表裏, 寒熱, 虛實을 區分하고 經絡과 臟腑를 同一하게 重視하여 機能的인 面에서 六經을 臟腑 經絡 氣血의 病變 및 證候를 概括하여 證候特徵, 病變部位, 寒熱推移 및 邪正盛衰를 辨別하여 診斷 및 治療의 根據가 되는 理論이다.” 하였고, 呂<sup>47)</sup>는 “仲景의 六經辨證을 理解하면 傷寒治療의 理致를 알 수 있고, 六經辨證을 깊이 洞察하면 百病治療의 理致를 알 수 있다.” 하였고, 柯<sup>29)</sup>는 “원래 仲景의 六經은 모든 病의 治療를 爲하여 立法되었고, 傷寒을 專門的으로 治療하기 爲한 것이 아니며, 傷寒과 雜病의 治療 理致가 둘이 아니며 六經으로 統括할 수 있고 六經에 傷寒이 있지 傷寒에 六經이 있지 않다.” 하여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意義를 外感, 內傷 및 雜病 등에도 運用 가능한 辨證體系로 格上시켰고, 陸<sup>48)</sup>은 “만약 《傷寒論》이 없으면 六經辨證이 失傳되고 六經辨證이 없으면 疾病을 治療하는 理致가 없어진다.” 하여 疾病의 認識 및 治療에 六經辨證이 가장 理想的인 方法으로 보았다.

그리고 惲<sup>43)</sup>은 “人體에 病이 없으면 六經은

存在하지 않고 …… 三陰三陽은 表裏, 寒熱, 虛實을 表明한 概念이며 臟腑經絡의 配屬關係가 아니다.” 하여 《傷寒論》의 六經辨證에서 經絡의 意味를 縮小를 試圖하였고, 李<sup>44)</sup>는 “三陰三陽은 辨證의 同異를 求하는 것으로 三陰三陽의 理致는 腹·背·表·理에 있어 經絡의 傳變을 求할 必要가 없다.” 하여 《傷寒論》의 六經理論은 辨證의 한 가지 方法이며 다른 辨證의 方法論이 可能性을 提示하고 있다.

19 C 末葉의 李<sup>44)</sup>는 “《傷寒論》을 爲主로 金元四大家 및 宋·明代 醫家들의 醫論과 醫哲學에 기반을 두고 四象人 性情의 過多에 의한 臟腑性理를 闡發하고 生理·病理·診斷 및 治療의 새로운 醫學體系를 확립한 著述인 《東醫壽世保元》에서 《傷寒論》의 六經病 중에서 三陰病證은 少陰人病證, 少陽病病證은 少陽人病證, 太陽病病證과 陽明病病證은 少陽人·少陰人·太陰人의 病證에 모두 있다.” 하여 歷代 《傷寒論》의 研究의 主題인 症狀分類 中心의 六經辨證 研究에서 사람(四象人)中心에 따른 症狀分類로 研究方向을 轉換하는 契機가 되는 醫論을 提唱하였다.

그리고 東漢末에 著作되어 오늘날까지 韓醫學에 影向을 미치고 있는 《傷寒論》에 對하여 山田<sup>16)</sup>은 “宋 以後 明·清代에 《傷寒論》의 六經辨證이 확립되었고, 또 《傷寒論》 屬의 發汗·吐·下·溫·灸·刺·水 및 火의 옛 八法은 《醫學心悟·醫門八法》에서의 汗·吐·下·和·溫·清·消 및 補의 八法과 八綱辯證<sup>49)</sup>의 確立으로 六經辨證은 모든 疾病을 視野에 넣는 辨證論治로 飛躍하게 되었고 千數百年의 歲月을 넘어 醫學을 새로운 단계로 突入시키는 張中景의 《傷寒論》은 무시무시한 潛在力을 갖춘 책이었다.” 하였다.

또 過去, 現在, 未來의 中國, 韓國 및 日本의

醫學史를 貫通하며 尙大한 影響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傷寒論》의 研究 方法論에 對하여 山田<sup>16)</sup>은 “에도時代의 日本醫家와 同時代의 中國醫家의 《傷寒論》을 研究하는 方法 및 方向의 差異가 오늘날 中國 漢醫學과 日本 漢方の 現住所에 明暗을 드리우고 있다.” 하였다.” 이는 現在 韓國 韓醫學의 研究 方向 및 方法이 未來의 韓醫學에 어떤 影響을 미칠 것인가에 對한 많은 것을 示唆하고 있다.

向後에 《傷寒論》의 六經病과 《素問》의 運氣七篇 및 《靈樞·經脈》의 聯關性에 對한 深度있는 研究를 통하여 標本中氣의 從化理論과 開闢樞의 氣化學說의 針灸 領域에서의 適用 可能性 및 經絡의 새로운 解釋으로 생각되는 “六經地面說”의 研究를 통하여 經絡의 意義, 領域 및 實質<sup>50,51)</sup>에 對한 研究가 必要하다고 생각된다.

#### IV. 結 論

《傷寒論》과 經絡學說의 相關性을 研究하기 위하여 《素問·熱論》의 熱病 轉變을 經絡理論으로 解釋한 六經分證과 《傷寒論》의 外感病 辨證理論인 六經辨證의 聯關性에 對한 歷代 醫家들의 醫論과 《傷寒論》에 對한 새로운 研究 方向 및 治療方法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素問·熱論》의 六經分證과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比較.
- 1) 《傷寒來蘇集》에서 《素問·熱論》의 六經은 全的으로 經脈을 爲主한 病이며, 《傷寒論》의 六經은 「六區地面」(六經地面說)이며 風寒, 溫熱, 內傷, 外感, 表裏, 寒熱, 虛實 등을 包含한다.
- 2) 《傷寒論》의 六經은 《素問·熱論》의 六經分證에 根據를 두고 있으며, 《傷寒論》의 六經의 다른 見解인 「段階」, 「地面」

「症候群」, 「六病」, 「八綱」 등은 疾病의 對한 認識의 差異點이다.

- 3) 《素問·熱論》의 六經은 分證의 綱領이고, 《傷寒論》의 六經은 辨證의 綱領이다.
2. 《東醫壽世保元》에서 《素問·熱論》 六經分證의 巨陽·少陽·少陰經의 病은 少陽人病, 陽明·太陰經의 病은 太陰人病, 厥陰經의 病은 少陰人病으로의 사람(四象人) 中心의 病症으로 解釋하였다.
3.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傷寒論》의 六經病 중 三陰病證은 少陰人病證, 少陽病病證은 少陽人病證, 太陽病病證과 陽明病病證은 少陽人·少陰人·太陰人의 病證으로 解釋하였다.

향후 《傷寒論》의 研究가 《素問·熱論》 六經分證 및 《傷寒論》의 六經辨證의 症狀中心에서 사람(四象人)中心으로 轉換되는 轉機가 될 것으로 思料된다.

#### 參考文獻

1. 이정훈, 윤종화. 足臂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8 ; 15(1) : 181-200.
2. 이정훈, 윤종화. 馬王堆 出土 醫書 중 陰陽十一脈灸經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1996 ; 16 (2) : 139-79.
3. 서용원, 윤종화, 김갑성. 馬王堆 出土醫書 中 《脈法》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 1 : 210-24.
4. 황민섭, 손성철, 배대영, 김갑성, 윤종화. 古代 經脈病症體系에 있어 “是動則病” 과 “是主某所生病” 에 關한 研究. 대한침구학회지. 2002 ; (19) 2 : 14-27.
5. 신광순, 장준혁, 윤종화. 《靈樞·經脈》 의 寸口人迎脈診에 關한 研究. 2002 ; 9 (1) : 210-4.
6. 凌耀星. 難經校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 1991 : 146-50.
7. 葉霖. 難經正義.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1 : 94-102.
8. 姜建國, 李樹沛. 傷寒析疑. 北京 : 科學技術出版社. 1999 : 7, 21-23, 210-1.
9. 福州市人民醫院. 脉經校釋.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4 : 344-485.
10. 錢超塵 校注. 唐本傷寒論.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4 : 1-332.
11. 劉渡舟. 傷寒論臨證指要. 北京 : 學苑出版社. 1999 : 2-4.
12. 葉發正. 傷寒學術史. 武昌 : 華中師範大學出版社. 1995 : 9-14, 20-25, 90-130.
13. 朱肱 著. 임진석 옮김. 活人書. 서울 : 아티전. 1998 : 54.
14. 陳明 · 劉燕貨, 張保偉 撰次整理. 劉渡舟傷寒臨證指要. 北京. 學苑出版社. 1998 : 17-22, 212-7.
15. 柯琴. 傷寒來蘇集.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 7, 69, 162-166, 178-198.
16. 山田慶兒 著(전상운, 이성규 옮김). 중국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 사이언스북스. 2002 : 177-8, 191-2.
17. 葉橘泉 收藏. 古本康平傷寒論.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88 : 1-3.
18. 李心機. 《傷寒論》疑難解讀.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9 : 40-1, 51-2, 69-76.
19. 馬繼興. 馬王堆古醫書考釋. 長沙 :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2 : 12, 321-652.
20. 王玉川. 運氣探秘. 北京 : 華夏出版社. 1995 : 6-9, 48-51.
21. 趙京偉, 朱 珍. 《傷寒論》六經學說과《內經》三陰三陽理論의 關係 探討. 浙江中醫雜誌. 2004 ; 39 (5) : 187-7.
22. 黃龍祥. 中國針灸學述史大綱. 北京 : 華夏出版社. 2001: 578-92.
23. 山田慶兒. 新發現 中國 科學史資料의 研究 · 譯註篇. 京都 : 中村印刷株式會社. 1976 : 363-404.
24. 班固 著, 李世烈 解譯 漢書藝文誌. 서울 : 자유문고. 1995 : 306-321.
25. 從春雨. 敦煌中醫藥全書.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94 : 114, 116-125.
26. 成无己. 注解傷寒論.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66 : 54, 150.
27. 龐有執. 欽定四庫全書 子部五 醫家類 · 傷寒論條辨. 서울 : 大星出版社. 1995 : 775-7.
28. 喻嘉言. 喻嘉言醫學全書 · 尚論.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59.
29. 柯 琴. 傷寒來蘇集 · 傷寒論注.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6 : 7, 69-70, 103, 159-62, 181-6.
30. 尤 怡. 傷寒貫珠集.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1998 : 2-3, 82-3.
31. 沈金鰲. 沈金鰲醫學全書 · 傷寒論綱目.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614-9.
32. 吳 謙 等編. 醫宗金鑑.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6 : 10, 120-21
33. 陳恭薄. 近代中醫珍本集 · 傷寒論章句.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 289-308.
34. 徐大椿. 徐大椿醫學全集(上冊) · 傷寒約編.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88 : 807, 856-7.
35. 韓祇和. 歷代中醫珍本集成(三) · 傷寒微旨論. 上海 : 上海三聯書店. 1989 : 1-2.
36. 黃元御. 黃元御醫學全書 · 傷寒說意.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0 : 539-41.
37. 張志聰. 張志聰醫學全書 · 傷寒論集注.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627.
39. 陳修圓. 陳修圓醫學全書 · 傷寒論淺注.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381

40. 揚力. 中醫運氣學. 北京 :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5 : 95-9, 203-6.
41. 南京中醫學院傷寒教研組 編著. 傷寒論譯釋. 上海 :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0 : 2.
42. 俞根初. 重訂通俗傷寒論. 台北 : 大中國圖書公司. 1976 : 1-2.
43. 惲樹珏. 歷代中醫珍本集成(5) · 傷寒論研究. 上海 : 上海三聯書店. 1990 : 9-24.
44. 韓東錫 著. 東醫壽世保元註釋. 서울 : 誠理會出版社. 1967 : 117-122.
45. 왕소영, 최환수, 김용진. 宋代 교정의서국(校定醫書局)에 대한 고찰(학문연구의 근거 구축의 관점을 중심으로). 대한한의학회지. 2004 ; 25 (1).
46. 金丁雨. 經絡學說을 통한 經脈病候에 관한 研究. 서울 : 東國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博士學位論文. 1994 : 101-6, 117.
47. 呂 震. 近大中醫診本輯 · 傷寒分冊 · 傷寒尋源. 浙江科學技術出版社. 1994 : 688.
48. 陸懋修. 陸懋修醫學全書 · 文十六卷(卷九). 北京 : 中國中醫藥出版社. 2000 : 71.
49. 江涵暎. 筆花醫經 · 表裏寒熱虛實辨. 天津 :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99 : 3-5.
50. 胡翔龍, 包景珍, 馬廷方. 中醫經絡現代研究. 北京 : 人民衛生出版社, 1990 : 4-6.
51. 王啓才, 謝景平. 當代鍼灸醫學新論. 北京 : 中醫古籍出版社. 2000 : 40-51.